

# DDA, 그로서 의장의 농업협상 평가와 전망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 의장은 지난 1월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방문, DDA 농업협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의 협상에 대해 전망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1. WTO 농업협상 평가

### 1.1. UR 협상의 평가

농업협상이 WTO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두 번째이다. 농업협상은 여타 협상보다도 어렵고 힘든 협상이다. 특히 각국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농정이 있는 상태에서 WTO를 통해 공통의 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UR나 DDA를 통해서 각국이 공통의 농정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개별 라운드 자체로 협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역협상에는 정책개혁과 자유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존재한다. 정책개혁과 자유화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갈 수 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타협이 필요하다. UR는 그러한 타협의 실례로서 자유화보다는 정책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속서 5B를 적용하여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였듯이 각

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허용하여 시장 자유화를 이루는 데에는 다소 미진하였으며 국내보조분야도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 1.2. 기본골격 평가

2004년 8월 1일에 합의된 기본골격은 협상 분야간 진전 정도에 있어 매우 불균형하였다. 농업협상은 세 개의 분야(pillar)로 이루어져 있다. 수출경쟁, 국내보조, 시장접근은 균형있게 병존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골격에서 수출보조는 철폐해야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반면, 국내보조의 개혁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생산중립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데 그쳤다. 수출보조는 적은 수의 나라만 사용하고 있으며 수출보조가 무역왜곡을 심화시키므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내보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치적인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약하므로 시장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시장접근분야는 수출보조나 국내보조보다 진전이 없는 상태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그림 1. WTO 농업협상 개념도



표 1. 기본골격 합의안의 주요 내용

	분류	기본합의사항
시장접근	1. 관세감축	○ 단일접근방식 - 구간별 감축공식(tiered approach) ○ 개도국 우대
	2. 민감품목	○ 신축성 부여 - 선정: 적절한 수의 관세라인을 자국이 선정 - 취급: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
	3. 개도국 우대조치	○ 관세감축폭, TRQ증량폭, 민감품목 수, 이행 기간에 있어 우대조치 적용 ○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 지정 가능 - 민감품목보다 큰 신축성 부여 ○ SSM 사용 가능성 존재
	4. 기타	○ TRQ 관리 방식 개선 ○ In-quota 관세 감축
국내보조	5. 무역왜곡보조 총액	○ 구간방식(tiered approach) - AMS, de-minimis, 블루박스 총액 - 이행 첫째 20% 감축
	6. AMS	○ 구간방식(tiered approach) - 품목별 상한설정 - 일부품목은 상한 감축
	7. de-minimis	○ [ ]% 감축 - 개도국우대 원칙 고려 - 빈농·생계농에 지급하는 개도국은 감축의무 면제
	8. 블루박스	○ 농정개혁수단으로서의 역할 인정 ○ 기존의 블루박스에 더해 새로운 유형 도입 ○ 상한설정 : 농업총생산액의 5%
	9. 허용보조	○ NTC의 적절한 반영 ○ 이행점검 및 감독 기능 강화
수출경쟁	10. 수출보조	○ 합의된 시점까지 수출보조 철폐 ○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

## 2. WTO에서의 개도국 관련 논의 동향

### 2.1. 개도국의 위상 제고

과거의 GATT 체제에서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에 의해서 지배되었지만, 사실 30년 전에는 이들 네 나라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도국간의 무역이 선진국간의 무역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이 도래했고, 이것이 칸쿤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나타났다. 칸쿤 각료회의는 개도국의 협상력 증대라는 정치적인 현실이 전환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칸쿤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러한 전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거대 선진국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G20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칸쿤 이후에 G20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면서 협상 구도가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WTO의 국가 분류

분류	포함 대상	국가수
선진국	미국, 프랑스, 그리스, 영국, 등 유럽 국가	35
일반개도국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 아시아 및 남미 국가	57
NFIDC	아프리카 및 일부 동남아 국가	23
LDC	"	32
비회원국 LDC	에티오피아, 수단 등 아프리카 및 동남아 국가	18

주 : (1) NFIDC: 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y

(2) LDC: Least Developed Country

## 2.2. 개도국 세분화와 우대조치

개도국에 대한 특별조치는 GATT의 전통이었으며, 현재 WTO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의 세 그룹으로 회원국들을 분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빈개도국들은 개발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다. 그러나 WTO 내에서 케냐 같은 나라와 한국,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을 개도국 단순 그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특히 미국이 개도국을 세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986년에는 개도국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6%, 선진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74% 정도였으나 2000년에는 개도국간의 무역비중이 47%까지 증가하여 개도국 내에서의 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개도국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 개도국의 후생에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3.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한국이 과연 선진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므로 이것에 관해 개인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이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한국은 여타 개도국과는 달리 수입과 관련하여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

## 3. 향후 협상 전망

올해 7월까지 모델리티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은 다소 지체롭지 못한 일이었다. 그 대신 모델리티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 2. 2005년 상반기 농업위원회 회의 일정

기 간	일 정	비 고
2.7~2.11	특별회의	
3.14~3.18	"	16일 정례회의
4.13~4.15, 4.18~4.19	"	
5.30~6.3	"	6.2 정례회의
7.11~7.15	"	

만약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아무런 지침이 없다면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본골격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의견들을 모으고 핵심 쟁점을 제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6차 홍콩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이 직접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협상이라는 공식적인 절차(official process)가 필요한 동시에 정치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보스의 각료회의 같은 비공식 각료회의가 앞으로 몇 차례 더 열리기를 기대한다.

협상은 기본골격에 제시된 홍콩 각료회의를 지나 200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이 2년 연장되는 경우 미국 행정부는 2007년 6월까지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